

文대통령 지지율 55.2%... 또 최저치 경신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공방 · ‘부동산 대책 논란’ 영향 민주 41.4% 한국 18.8% 정의 11.8% 바른 6.6% 평화 2.8% 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한 번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0.8%p 떨어진 55.2%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8월 5주차 주간 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3%)에 따르면 전체의 55.2%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지난 주간집계 대비 1.9%p 오른 40%(매우 잘못 23.2%·잘못하는 편 16.8%)로 나타나며 취임 후 처음으로 40%선을 넘었다. 모름·무응답은 1.1%p 내린 4.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24일 일간 집계에서 57%를 기록한 후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주장이 가속화되고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일었던 27일은 56.1%로 소폭 하락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던 28일에는 55.3%를 기록하며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위크숍에 참석했던 29일에는 56.1%로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과 8·27 부동산 대책 논란이 확대되던 30일엔 55%로 다시 떨어졌으며 대북특사 파견 소식이 전해졌던 31일에도 54.3%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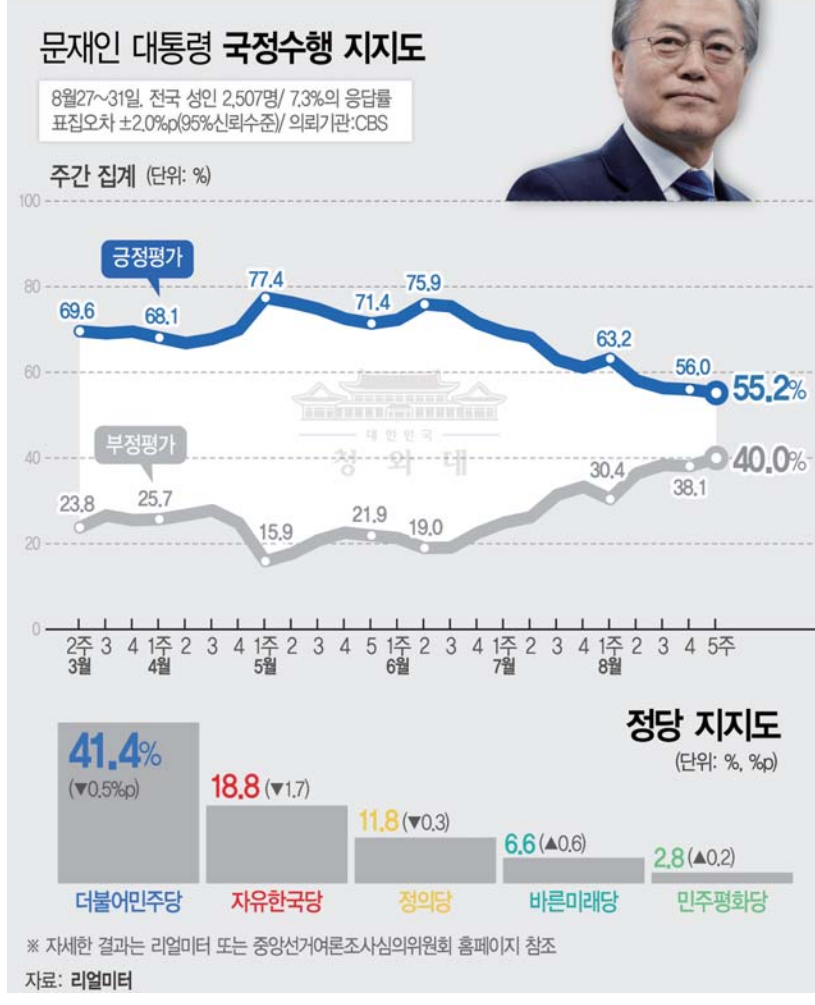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주간집계 대비 0.5%p 내린 41.4%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당(18.8%)·정의당(11.8%)·바른미래당(6.6%)·민주평화당(2.8%) 순으로 각각 민주당 뒤를 이었다.

이들러 문 대통령의 2기 개각 발표에 대해 국민 절반인 50.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

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잘했다 67.5% vs 잘못했다 13.5%), 서울(56.8% vs 21.9%), 대전·충청·세종(52.0% vs 29.9%), 경기·인천(49.3% vs 27.9%)에서는 긍정 평가가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잘했다 40.3% vs 잘못했다 38.3%)과 대구·경북(38.0% vs 37.7%)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잘했다 71.1% vs 잘못했다 11.1%)과 정의당(71.0% vs 13.1%)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0% 이상 높았다. 한국당(16.0% vs 67.7%)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잘했다 32.0% vs 잘못했다 35.2%)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식, ‘노회찬법’ 대표 발의

‘원외지역위원장 자금 모금 합법화’

의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회찬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들 곁을 떠난 사건에서 보듯,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도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원의 인사간 정치자금 형성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및 단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하지 못하도록 법인 후원을 금지하고 비민주적 운영의 후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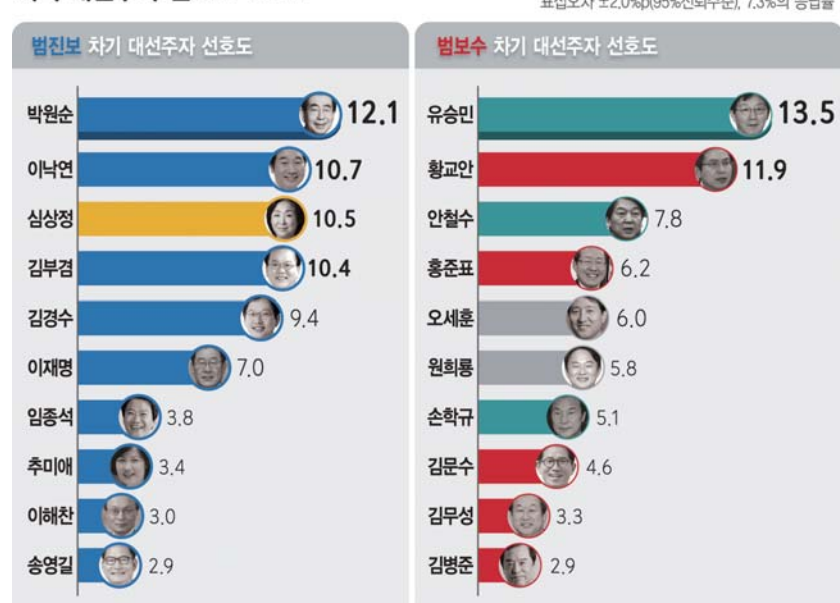
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러 “본 개정안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 유은혜, 심상정, 유동수, 윤소하, 인재근, 이정미, 맹성규, 윤우덕, 제윤경, 심기춘, 박홍근, 이용득, 박정, 노웅래, 설훈, 소병훈, 윤준호, 서삼석, 신창현, 박찬대, 김철민, 김영호, 송갑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리얼미터 “박원순·유승민, 범 진보·보수진영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단위: %)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는 범(汎)진보와 범 보수진영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각각 1위를 집계했다고 3일 밝혔다.

27~31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07명(95% 신뢰수준 ±2.2%p)에게 8월 월간 정례 범 진보·범 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다. 우선 전체 응답자에서 범 진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박원순 시

장이 1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10.7%,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5%,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10.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4%, 이재명 경기도지사 7.0%,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3.8%,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3.4%, 이해찬 민주당 대표 3.0%, 송영길 민주당 의원 2.9% 등 순으로 집계됐다.

범 진보 대선 주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진보층(758명·±3.6%p)에서 박원순 시장이 15.8%, 이낙연 총리가 15.3%, 심상정 의원이 13.2%, 김경수 지사가 12.8%를 기록, 오차범위 내의 격차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중도층(943명·±3.2%p)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14.4%, 박원순 시장이 11.3%, 이낙연 총리가 10.8%, 심상정 의원이 10.3%로 10%대를 기록했다. 이어 김경수 도지사 9.4%, 이재명 도지사 7.5%, 임종석 비서실장 3.8%, 송영길 의원 2.4%, 추미애 전 대표 2.3%, 이해찬 대표 2.1%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1022명·±3.1%p)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김경수 지사가 17.3% 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16.6%), 이재명 지사(8.1%), 심상정 의원(7.5%), 추미애 전 대표(4.9%), 임종석 비서실장(4.3%), 이해찬 대표(2.7%), 송영길 의원(2.4%) 순이었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에서 범 보수 대선 주자 지지도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 11.9%,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7.8%,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6.2%, 오세훈 전 서울시장 6.0%, 원희룡 제주지사 5.8%,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5.1%, 김문수 전 경기지사 4.6%, 김부겸 자유한국당 의원 3.3%,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2.9% 순이다.

다만 범 보수 주자에 큰 영향을 미칠 보수층(487명·±4.4%p)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25.9%를 기록, 다른 주자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943명·±3.2%p)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16.8%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황교안 전 총리 12.8%, 안철수 위원장 8.8%, 원희룡 지사 6.9%, 홍준표 전 대표 6.1%, 오세훈 전 시장 5.9%, 손학규 대표 5.1%, 김병준 비대위원장 3.6%, 김문수 전 도지사 3.5%, 김부겸 의원 2.4%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한국당 지지층(506명·±4.4%p)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3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11.8%), 오세훈 전 시장(10.6%), 김문수 전 도지사(7.6%), 유승민 전 대표(5.5%), 김부겸 의원(5.1%), 안철수 위원장(4.8%), 원희룡 지사(3.9%), 김병준 비대위원장(2.3%), 손학규 대표(1.7%) 순이다.

바른미래당 지지층을 포함(674명·±3.8%p)해도 황교안 전 총리가 28.6%로 선두를 지켰다. 이어 유승민 전 대표(10.8%), 홍준표 전 대표(9.8%), 오세훈 전 시장(9.1%), 안철수 위원장(9.0%), 김문수 전 지사(6.2%), 김부겸 의원(4.2%), 원희룡 지사(4.2%), 손학규 대표(2.9%), 김병준 비대위원장(2.7%) 순으로 조사됐다.

뉴스스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공동체·미래창조·정통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Gwangsan